

멕시코의 大學敎育과 멕시코國立大學校

鄭 惠 禎
(韓國外大 西班牙語學科)

1. 머리말

올림픽이 몇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서울 올림픽은 세계 5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질 인류의 축제이기도 하고 국제화의 시대가 황금기에 접어들 호기이기도 하다. 이에 발 맞추어 올림픽을 이미 1968년에 개최했던 멕시코의 역사 및 문화 등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교육 제도에 대한 전반적 기술을 한 후에 필자가 한 때 소속되었던 멕시코 국립대학교에 관한 것을 논하고자 한다.

2. 멕시코의 文化와 歷史

멕시코는 면적이 한국의 약 9배 정도인 끝이 찢은 모양의 나라로서 첨단이 마야 문명으로 유명한 유카탄 반도이다. 멕시코는 연방제 공화국인데 31개 주와 하나의 연방 특별구로 되어 있다. 지형에 따라서 갖가지 형태의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연안부는 열대성 기후, 중앙 고원은 온대 기후, 국토의 척추인 동서의 두 시에라 마드레 산맥은 한랭 기후이다. 따라서 식물도 다채롭다.

프랑스의 작가 자크 페레는 '세계에서 가장 다분하지 않은 나라'라고 썼는데, 사실 북쪽의 국

경에서 남쪽 국경까지의 약 3,000 km 사이에 실로 많은 민족, 습관, 풍경이 존재하고 있다.

옛날에 대립하던 인디오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텄다. 인디오가 짐중 거주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리듬으로 생활하고 있는 산 속에는 옛날 그대로의 많은 신전이 있다. 거기에서는 원시적인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이적인 융합을 볼 수 있다.

종교적인 것이 일상성과 섞여 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멕시코의 수호자 구아달루페의 성모의 축제가 있는 12월 12일경은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찬다. 聖週間 때의 그리스도 수난극은 무서우리 만큼 리얼하게 재연되고, 그 반면에 멕시코의 묘지는 분위기가 너무나 밝다. 부드러운 빛의 무덤들과 바깥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 없다. 죽은 자를 이 세상에서 격리시킨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한다.

멕시코에는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 많다. 너무 많아서 학자들은 오래 된 현장에서의 탐구보다는 새로운 현장 발굴에 예산을 할당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피라밋, 신전, 구기장, 석주, 기념비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최근의 발굴 현장은 멕시코시티의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서 공사가 한걸음 진척될 때마다 새로운 유적이 나타났다.

멕시코시티에는 세계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있는데 시내의 차뿔떼백 공원 안에 있는 국립 인류학 박물관은 베드로 라미레스 바스케스가 설계한 것이다. 거대한 콘크리트의 베일을 중앙의 원주 하나로 받치고 있다. 그 곳은 물이 흐르는 안 뜰이 되고 안 뜰을 둘러싸고 진열실이 있다. 1층은 멕시코의 고고학적 부문을 전시하고, 2층은 현재의 원주민의 생활 양식과 용구 등의 민속학적인 것을 전시하고 있다. 모두 그 자료가 풍부해서 멕시코의 과거와 현재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시 남부의 대학 도시 근처에 아나와카리 박물관이 있다. 디에고 리베라가 자신의 수집품을 국가에 헌납하고 그 건물도 자신이 설계한 것이다. 피라미팅 신전과 같은 건물로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 비쳐 드는 빛 속에 수집품이 신비스럽게 떠오른다. 이곳에는 오히려 민중들이 사랑하던 작은 彫像類가 많다. 사냥하는 모습, 낚시하는 모습, 잠자거나 미소짓거나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등이다. 시의 교외에서 출토한 무용수상 옆에는 멕시코만 연안 주민들이 숭상하는 육감적인 여신상이 있다. 할리스코주에서 출토한 어부상이 모피 저고리의 것을 세우고 남작한 큰 도자를 쓰고 있다.

세번째로는 시내의 차뿔떼백 공원에 있는 시내의 국립 역사 박물관이다. 이 성의 창문으로 황제 막시밀리아노와 황후 카롤로따가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거리를 우울하게 내려다 보고 있었겠지만, 아롱든 지금은 역사 박물관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복자 코르테스의 초상화는 빛이 바랜 것이 구석에 밀려 있을 뿐이다. 그것보다는 식민지 시대의 50인의 부왕들의 초상화가 상당히 재미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3세기에 걸친 스페인의 유행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멕시코인은 자신들의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식민지 시대를 무시하고 마야족이나 아스떼카족 등의 차원에 직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식적인 인구 통계로는 백인 10%, 인디오 30%, 혼혈 60%이지만 祖上回歸의 지향성은 공통적이다. 정복자 코르테스에게 항거한 최후의 황제 쿠아우테묵의 彫像이 경배되고 민

족의 축제가 존중되고 있다.

오늘날 멕시코의 역사는 아스떼카족의 이동에서부터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북으로부터 남하하던 아스떼카인들의 멕시코(지금의 멕시코시티) 강에 이르러 사보덴(선인장의 일종) 위에 독수리를 휘감은 뱀을 발견하고 그 땅에 정주하게 되었다. 그 후 남쪽에서 유카탄을 거쳐 북상한 마야족에 의하여 꽃을 피운 인디언 문화는 스페인의 장군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소규모의 전갈 병력에 무릎을 꿇어 3백년간(1521~1821)의 혼혈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독립 이후에도 계속된 내전의 혼란을 겪었으며, 1846년 대미 전쟁의 패배로 광활한 영토를 미국에 할양하는(지금의 캘리포니아, 에리조나, 뉴 멕시코, 텍사스, 네바다 및 유타) 쓰라림을 당하였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제시한 신의 은총은 그들의 고통만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니,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의 와중에서 멕시코는 사우디에 버금가는 세계 유수의 산유국으로 등장하여 중동 위기에 처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추정 매장량이 2천 2백억 배럴에 달하여 신의 계시는 드디어 그들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은총을 내린 것이다. 최근의 유가 하락과 누적된 외채 부담,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대통령 선거 당선 시비 등으로 멕시코는 최대의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근간의 어려움만 잘 이겨 나간다면 다시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하리라는 견해도 있다.

3. 멕시코의 敎育制度와 멕시코國立大

멕시코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 6년간의 초등교육, 3년의 중등교육,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대학에서는 전공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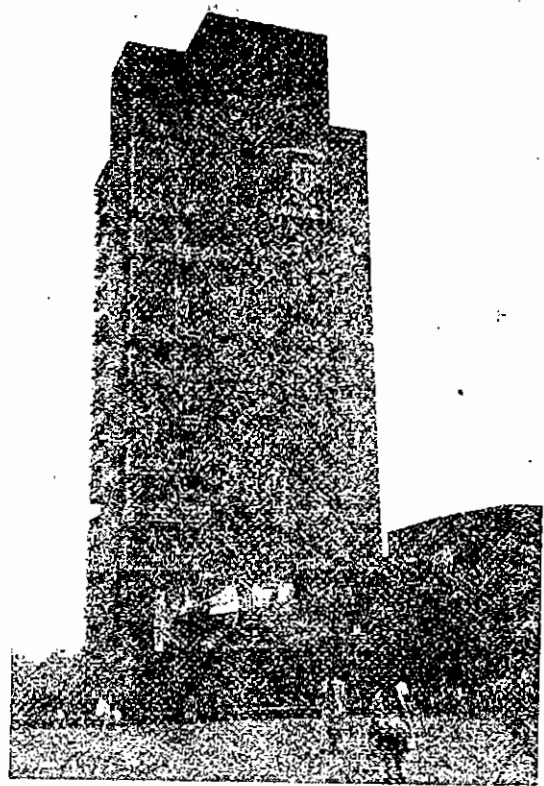
집단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5세 때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요즘은 그곳에서도 가족 계획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어서 옛날에 비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그래도 전통적인 가톨릭 사회

이어서 대부분이 3~4 명씩의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가 옛날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 그래서 소위 유명하다는 유치원의 원아 모집시에는 낮지 않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행운의(?) 유치원생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몇몇 사립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학비가 국내인에게는 거의 무료로 가깝다. 외국 유학생에게는 자국 학생의 등록금과 차이를 두어 받지만 결코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생활비 등이 필요한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것이 절실히서 문의가 쇄도하지만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양국간의 문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일본이나 중공과는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는 장학금에 의해 멕시코 학생들이 수학하는 예는 몇몇 있었지만 우리가 멕시코 정부 장학금을 정식으로 받은 예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진학율은 높은 편이나 졸업시에 1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졸업 시험과 30 페이지의 짧은 논문을 써야 하는 조건 때문에 수료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자격을 얻는 것에(위의 조건을 통과한 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석사학위는 같은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분야가 다를 경우는 학사과정의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3학기 또는 4학기의 수업을 받은 후 학위 논문 통과와 함께 취득하게 되며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최소 3년간의 과정을 거쳐 학위 논문 통과 후에 수여된다.

멕시코의 대학교육은 스페인 통치하에서 페루의 리마에서와 동시에 일찌기 1551년에 시작되었는데 서반아어보다는 라틴 문법과 대표적인 원주민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라틴어로 시론, 논리학, 철학 그리고 의학 등을 배웠으며 많은 라틴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스페인 통치하의 중남미 국가들에서 16세기에 이미 24개 대학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포르투갈이 통치한 브라질에서 19세기 중반까지도 대학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멕시코國立大의 상징물인 중앙도서관

멕시코시티의 한 지역에 거대한 대학촌을 이루면서 성장한 멕시코 국립대학교는 1551년 9월 21일 스페인의 살라망카대학을 모델로 하여 세워진 멕시코 최초의 대학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교의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을 받은 시기가 있었는데, 1865년 막시밀리안노에 의해 폐교되었다가 1910년 후스프 씨에라와 에세끼엘 차베스에 의해 고등교육의 요람으로서 재출발하게 되었다. 그후 1929년 7월 10일 대학의 자치권을 획득하였고, 1933년 8월 19일 에밀리오 포르테스 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법령에 의거해 대학 이사회가 이 대학교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되어 모든 행정 이 독립적인 자치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학교는 17개의 단과대학(문학, 이학, 법학, 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공학, 화학, 건축학, 음악, 미술, 예비학교 그리고 과학인문), 15 개의 연구소(천문, 생물, 물리학, 지구물리학, 지리, 지질학, 생의학, 수학, 화학, 도서관학, 경제학, 미학, 철학, 법학, 사회학)를 가지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독자적인 학사 일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위 수여의 경우에는 미국의 개방적인 면과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의 경우에도 학위 취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민의 경우는 라틴 특유의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과정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대학원 수업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러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통례이지만 자비로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 유학생들의 입장에서서는 그들의 보수적인 풍토가 때때로는 초조감을 더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될 때가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교의 상징물로서 국내·외에서 유명한 모자이크 양식의 중앙도서관은 멕시코의 관광 명소로서 등장할 만큼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약 300 만 권의 책, 정기 간행물, 각종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앙도서관 이외에도 각 대학마다 별도로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전공한 언어학의 경우에는 서반아 언어학 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간이나 논문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을 개방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중앙도서관까지 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문과대학 도서관과 언어학 센터에서 거의 모든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는 타대학의 도서관도 멕시코 국립대학교의 학생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한 예로 멕시코 국립대학교와 많은 연관이 있는 콜레히오 데 메히코(Colegio de México)에서는 특히 언어와 지역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 과정이 없이 대학원 과정만을 갖고 있으며 언어학 잡지를 비롯한 여러 책들과 간행물 등이 발간되고 있고 풍부한 자료들을 구비한 도서관으로 유명하다. 그곳은 언제라도 신분증 하나면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또한 한 공

간에 모든 시설들을(복사기까지) 구비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나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멕시코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콜레히오 데 메히코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듯이 두 학교 교수들 사이의 교류도 활발하여 보다 새롭고 풍부한 자료로 신선한 수업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는 학교가 멕시코시의 남쪽에 하나의 마을을 이룰 정도이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나 한 가지 불편한 점, 특히 필자가 불편을 느꼈던 점이 라면 식당이 없다는 것이다. 학부인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를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 있고 대학원 과정은 오후 수업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과는 무관하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다지 구내 식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해는 한다 해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유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스낵 같은 곳에서 샌드위치나 토르타(딱딱한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와 비슷한 음식) 등을 팔지만 점심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아침과 저녁은 대개 빵으로 하지만 점심은 수우프—고기—야채—디저트의 full-course이다) 점심까지 대강 해결하고 나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내 식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 더욱더 유감스럽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시절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는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향수에 젖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나는 언제라도 멕시코 국립대학교를 추천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4. 맺는 말

대학의 기능과 역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등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문제 등을 접하고 있으면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몇 년간을 몸 담았던 멕시코 국립대학교와 비교해

보는 경우가 있다.

그곳에서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강한 관료주의 때문에 행정상의 지연과 부작용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 나라가 처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때문인지 대학 사회가 개방되어 있고 학생들은 그들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 있으며 무관심처럼 보여지는 질서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그의 영역을 벗어나는 언동을 하지 않으며 교수는 교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교수와 학생간의 경직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

굳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개개인의 가정 환경이 다르듯이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교수는 보수적이며 고전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학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은 그의 직분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교수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학생이 교수일 수 없고 교수가 학생이 될 수는 없다. 각자의 영역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수행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당면한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公教育費 및 經常教育費

區 分	韓 國		日 本 (1983)	美 國 (1985)	西 獨 (1983)	
	1980	1986				
GNP 對比 文教豫算(%)	3.2	3.3	4.7	5.7	6.7	4.5
學生 1 人當 經常教育費(\$)						
國 民 學 校	158	410	800	1,618	3,173	1,689
中 學 校	205	391	1,030	1,814		
高 等 學 校	316	515	1,420	2,361	3,173	2,377
大 學	987	1,430	2,280	5,471	6,255	2,624

出處: 「教育改革綜合構想」(教育改革審議會, 1987. 12)